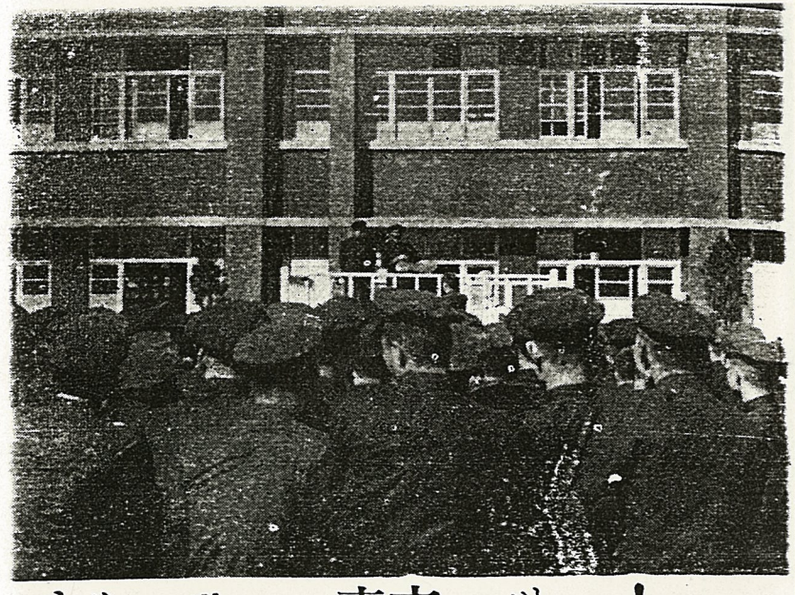
民主革命의 발자취

全國各級學校
學生代表의 手記

東亞日報
李 綱 鉉 編



횃불을 밝혀라, 東方의 빛들아!

慶北高等學校 學生

二월 二五일

경북고교(慶北高校) 학생들은 여덟 시간 수업이 다 끝났다고 모두 옷어가며 흐트러진 책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학생들의 얼굴에는 오늘도 종일 배움에 정진했다는 희열과 가벼운 피로의 빛이 엇섞여 있었으나、 종례를 기다리는 그들 하나 하나의 얼굴에서는 초조의 빛마저도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종례 시간에 들어오셔야 할 담임선생님은 십분을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다。 그래서 주번으로 하여금 담임선생님을 모셔오게 했던 것이다。

교무실을 다녀온 주번은、

「선생님은 지금 직원회의 한다고 못오신다카더라。 그런데 이번 二월 二八일 오후 한시에 일요등교(日曜登校)시킨다더라。」

하고 전달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듣고、 二학년 五반 학생들은 이구석 저구석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복도에 나가 보니、 一학년 一반도 二반도、 二학년 四반도 八반도、 전교생 모두가 다、

「야 희한한 일 다봤다。 개새끼들、 별지랄 다한다。」

하며、 불만과 반항에 찬 목소리로 떠들고들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담임선생님께서 드디어 교실에 나타나셨다。

선생님은 마침내 입을 여셨다。

「에——、 이번 일요일엔 빠짐 없이 학교에 나오너라。 二八일 오후 한시에는 여하한 사정이 있더라도 만사를 제쳐 놓고 등교해라。」

선생님의 음성엔 무언가 모르게 한가닥 안타까움이 흐르고 있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분노에 찬 목소리로、 이유가 무엇이냐(그 이유를 전혀 짐작 못하는 바도 아니면서)고 캐고 들었다。

二八일 하오 한시 야당(野黨) 입후보자 장면(張勉)씨의 선거유세 방해책(選擧遊說妨害策)으로 취해진 조처가、 일요 등교라는 명목으로、 신성한 학원에까지 부정선거(不正選擧) 바람을 휘몰아치게 하고 만 것이다。 우리들은 가슴이 터지는 듯한 울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허둥지둥 내 방으로 들어가서 책가방을 집어던지고、 한참 동안이나 책상에 엎드려서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화산(火山)처럼 폭발하려는 나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를 않았다。 서녘 하늘의 저녁 놀은 한결 붉게 타고 있었고、 창 너머로 바라보이는 한 조각 푸른 하늘조차 짜증스럽기만 했다。

三·一五의 선거 폭풍이 온 천지를 뒤덮더니 마침내 부정 선거지령(不正選擧指令)이 나오고、 어제는 살상(殺傷)、 오늘은 칼부림 등으로 조국의 운명은 암담하기만 한 이 때! 나의 마음은 한 없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조국을 구할 길은 없는가? 나는 다시 이를 악물고 이렇게 나 자신에게 물어 보았다。 썩을 대로 썩어빠진 기성사회、 낡아빠진 세대들의 장난의 흙탕 물결은 백합꽃처럼 순결한 우리 학도들에게까지 미쳐、 이젠 우리 젊은이들의 혼마저 강제로 빼앗아 가려고 한다。 비겁하고도 포악한 부정선거가 학원의 자유조차 박탈하고 말았던 것이다。

국운이 기울어져가고 있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할 작정으로 웅크리고 앉아만 있느냐?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너의 목숨도 바쳐야 하지 않느냐고、 난 나의 마음에 자문자답했다。 그러자 방문이 슬쩍 열리더니 몇몇 벗들이 들어왔다。

「나의 피가 뜨겁게 용솟음치고 있는 한 二八일 등교는 어려울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밤은 자꾸 깊어만 갔다。

밤 두시가 지났건만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질 않아서、앉았다 누웠다 몸 둘 곳을 몰랐다。

눈을 감으면 헐벗은 내 형제들의 파리한 모습이 눈 앞에 떠오르고、배고파 쓰러지는 뭇 군중들의 얼굴들이 자꾸만 안막에 영상을 짓고 사라지는 것이었다。불의(不義)와 부정(不正)에 반항하자는 마음은 굳어만 갔다。

二월 二六일

이럭저럭 뜬눈으로 二五일 밤을 지내고、二六일、새로이 밝아오는 아침을 맞았다。

그러나 자유당(自由黨) 천하의 무시무시한 권력의 사도들의 총칼이 번쩍이는 이 마당에서、감히 반항이란 꿈에도 상상 못할 것 같았다。보안법(保安法)! 이적행위(利敵行爲)! 아아、그 얼마나 무서운 죄목(罪目)인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반항할까? 데모?

나는 이렇게 거듭 생각해 보았다。

〈만약 데모를 한다면、그에 대한 처벌은 사형(死刑)일까、징역일까? 징역이라면 몇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퇴학은 물론일 것이다。그렇다면 난 어떻게 될까?〉

철 없는 마음에 이러한 공포와 전율에 떨기도 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데모를 감행하기로 마음깊이 굳게 결심하고、이불 속에 파고 들어가 누웠으나 잠이 올 리 없었다。

〈오는 二월 二八일 하오 一시 등교에 관한 일〉이라는 학생위원회 소집안건을 써 가지고、나는 학교로 향하여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학교에 닿자마자、지도 선생님께 소집 허가를 요구했더니、선생님은 말없이 학생과장 선생님께로 넘겼다。

학생과장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시 교감 선생님께 넘겼다。

교감 선생님은 당장에 쓴웃음을 지으면서 나를 한 번 쭉 훑어보는 것이었다。

교감 선생님은

「왜? 등교하라는데 무슨 이의가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다。교감선생님은 이어서、

「경북중학 시험 관계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별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러면 선생님、시간을 따져 봅시다。」

하고 육박했다。

한참 동안 망설이던 끝에 교감 선생님은 비로소 학생위원회 소집을 허가하였다。이리해서 점심 시간에 학생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실에 돌아오니 어느 선생님께서는

「영웅도 시대를 따라야 한다。」

하며 만류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 위원회는 드디어 전교생의 주시리에 막을 올리고야 말았다。

빠짐 없이 참석한 대의원(代議員)들의 표정은 더 없이 착잡한 심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만 같았다。

나는 사회자로서 학생위원들을 향하여、

「지금부터 오는 단기 四二九三년 二월 二八일 하오 한시 등교에 관한 안건(案件)을 토의하겠읍니다。」

하고 소집 이유를 밝혔다。

대의원들의 노기(怒氣)에 찬 발언은 줄기차고 거침 없었다。

혁명의 불꽃은 타오르고 있었다。

일요 등교 이유를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 때 지도 선생님、체육 선생님、학생과장 선생님、교무과장 선생님、교감 선생님 등이 이 회

합에 참석하였다。

학생들의 발언이 열을 띠게 되자 선생님들은 드디어 입을 열어、

「지금 우리들의 주위 환경이 만할 수 없이 시끄럽다。 그러니 우리는 오로지 공부에 열중할 따름이지、 일체 외계의 변화에는 노탓취 해주기 바란다。 너희들의 심경(틴·에이져의 페지스탕스)은 잘 이해하겠다。 그러나 서로가 이해하는 것이 사제지간(師弟之間)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상 더 말을 하려고 해도 괴롭기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었다。

이 말씀을 들은 순간、 나의 마음은 더욱 격분으로 끓어올랐고、 학생들을 무마시키려는 선생님들의 열심을 볼 때 왜인지 가슴이 아파 왔다。

그러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소생을 위해서 감연히 일어서리라고、 나의 마음은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회의는 계속되었으나、 별다른 결론은 얻지 못했다。

二월 二七일

二七일은 밝아왔다。

조회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담임선생님의 목소리……이게 웬 말인가?

「내일 등교는 그대로 하고、 시험도 치른다。」

이 말이 전해지자、 전교 학생들은 물끓듯 하는 여론에 휩싸였다。

이반 저반에서 들려오는 부정을 규탄하는 함성은 나의 이 좁은 가슴을 애타게 울려 주었다。

맥맥히 솟아오르는 정의에의 핏줄은 백의인(白衣人)의 피、 바로 그것이었다。 경고학생위원(慶高學生委員)들은 마침내 교장실로 돌입했다。

교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인자한 교장 선생님은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자네들 왜 왔어? 말해봐。」

교장 선생님께서는 친절하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 도대체 일요일에 등교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학생위원들은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

「일요일은 전 세계 인류가 공휴일로 정해 놓고 일주일 동안 시달리고 지친 피로를 회복하는 날이요、 또 종교인들은 이 날을 계명일(誡銘日)로 정하여、 신성한 그야말로 HOLYDAY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학생들이 예리하게 캐고 들어가자、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이유는 자네들도 잘 알테니、 이 이상 묻지 말아 다오。 내 마음이 심히 괴롭다。」

하고 말씀하셨다。 선생님의 표정엔 안타까운 그 무엇이 어리어 있었다。

비굴한 행복보단 정당한 불행을 왜 몰랐으랴만、 교장 선생님은 교장회의 때 일요등교를 강력히 반대했으나、 그 당시의 추상같은 명령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그럼 영화 감상으로 대체시킬까?」

하고 말하였다。

교장실을 뛰쳐나온 우리는 곧 데모에 대한 최초의 결의를 하려 했으나、 비밀이 누설될까 두려워、 각 대의원들을 통해서 제각기 자기 반에 돌아가 내일(二八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등교할 것을 호소케 했을 뿐이었다。

나는 우리 반으로 돌아와 데모 단행의 비밀을 가슴 깊이 간직한 채、

「어쨌든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등교하면、 영화 관람을 가든지 뭘 하든지 뭐가 있어도 있을 것이니、 내일 모두 학교에 나오라。」

하고 알렸다。 학우들은 모두 투덜거렸으며、

「치얏뿌라。 학교 안 오면 되지。」

하며 함성을 질렀고、 개중에는 무턱대고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도 있었다。

눈물을 머금고 교문을 나선 나는 그제야 몇몇 학우에게 데모 결행에 관한 계획을 얘기했더니,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편에서는,

「데모는 그만 두고 등교거부나 하지 뭐。」

「데모까지 할 거야 있나。 임마、 너 죽으면 우얄라카노。」

하고 의아스런 표정을 짓기도 했다。

그 길로 一학년 대의원들에게 오후 다섯시까지 우리 집에 오도록 연락을 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二六일 오후 일곱시 경에 대고(大高) 학생위원장을 만나、

「너의 학교도 이런 해괴한 일이 있나。 아、 임마、 二八일 일요일 오후 한시에 학교에 나오래。 그 날 한시에 민주당의 선거 연설이 수성천변(壽城川邊)에서 있거든。」

하고 말을 했더니

「우리 학교는 아무 말도 없더라。」

「그러면 내일(二七일) 만나서 자유당(自由黨) 연설이나 들으러 가자。」

하는 약속을 해 놓고 우리 집에서 헤어졌던 것이다。

한시에 만나기로 약속한 대고(大高) 학생위원장은 벌써 우리 집에 들렀다가 자유당 연설을 들으러 간 뒤였다。

부랴부랴 한달음에 뛰어 자유당 연설회장에 가서、 대고(大高) 학생위원장을 샅샅이 찾았으나 찾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얄미운 인간 한희석(韓熙錫)의 음성만이 유달리 나의 귓전을 스쳤다。

그 곳에서 경고생(慶高生) 십여명을 만나 데모 단행의 결심을 전달하고、 바톤식 연락에 착수했다。

태양은 우리의 머리 위를 내리쬐고 아스팔트 길 위 행인들의 발부리엔 허연 먼지가 휘날리고

있었다。

그 길로 집을 거쳐 학우들의 집을 찾아 다니면서 조심조심 연락을 서둘렀다。

다구 거리를 광인처럼 뛰어 다니면서 연락에 정신이 쏠린 나의 눈앞에、 무언지 한가닥 섬광이 뿌연 안개 속에 번쩍 빛나는 것만 같았다。

이제 일은 활발히 착착 진행되어、 거리에서、 집에서、 연락에 전력을 다했다。

벌써 시간은 오후 다섯시、 일몰(日沒)이 가까와 오고 있었다。

그 길로 담을 뻘뻘 흘리며 몇몇 학우들과 집으로 뛰어 왔으나、 온다고 약속했던 대의원들이 오질 않았다。

여기에서 난 실망했다。 그러나 한 가닥 희망을 안고 계속 연락에 착수했던 것이다。 집집마다 찾아 가는 나의 심정은 한 없는 격분과 걷잡을 수 없는 감정으로 휩싸여 있었다。

「비밀을 지켜 다오。」

그 한 마디를 남기며、 나는 집에서 집으로 뛰어 다녔다。

이렇게 해서 오십여명의 벗들에게의 연락을 마쳤던 것이다。

벌써 시간은 밤 아홉시、 부랴부랴 결의문(決議文)을 작성하여 정서를 했다。

그 길로 집에 돌아왔더니、 벌써 대구 고등 학생위원장、 부고(附高) 학생위원장이 와 있었다。

「아 지랄、 우리 학교는 오늘 종례시간에 전달하는데、 내일 오후 한시에 토깨이 잡으러 간다고 등교하라카더라。 뭐 이른 일이 다 있어。」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부고(附高) 위원장도 역시 분노한 어조로 부당한 처사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던지는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들은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분노에 휩싸여 한참 동안 흐느껴 울었다。 눈물을 흘려가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한민족(韓民族)의

운명을 생각하며 신중한 모의를 했던 것이다。

백두산 기슭 박달나무 밑에서 단군 할아버지를 모시고、우리 배달겨레가 눈물과 격분 속에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벗들은 모이고 모여 삼십여명이 넘었다。시간은 열 한시 오분！마침내 데모 결행에 합의하고、다른 학교에도 이 사실을 연락하려 했으나 이미 시간은 늦었다。

통금시간(通禁時間)이 되자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고 차가운 나의 냉돌방(冷突房)에 일곱 명의 학생 동지들만이 남아서、이불 속에서 손을 마주잡고 나라를 생각하고 조국의 민주주의와 배달겨레의 앞날을 눈물로써 이야기하면서、이 밤을 잠 한숨 못잔 채 뜬눈으로 새우고 말았다。

동이 터오를 무렵이었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은 한결 차가왔고、이웃집 수탉들은 새벽의 적막을 뚫고 울어댔다。어서 새날이 밝기를 기다릴 뿐이다。

이 때다。밖에서 무엇이 바스락하기에 순경인가싶어 문을 열고 내다보았더니、순경은커녕 쥐새끼 한쌍이 달음박질치고 있었다。

우리 일곱명의 동지들은 다시 손을 마주 잡고 마지막 단안을 이렇게 내렸다。

一、명(明) 二월 二八일 하오 한시를 기해 일제히 궐기하여 자유를 전취하기 위한 피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다。

二、데모한 학생을 구속하거나 선생님들에 대한 인사적(人事的) 조치가 있을 때는、우리는 데모를 계속할 것이며、사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한국의 전 백만 학도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마지막 단안을 내렸으나、막상 데모를 하려고 생각하니 주저가 아니될 수 없었다。

자유당의 권력과 총검 앞에서、더우기 치열한 선거 기간에、이러한 반기(反旗)를 들고 나선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확실히 모험인 것이었다。

우리 벗들은 둘러앉아、

「우리가 내일 나가면 죽을는지도 모른다。천당에서나 만나자。찬 바람이 때려치는 철창에서 만나자。이제 우리들은 이미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 이상 핏줄기가 뻗쳐 나와 죽을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자。」

하고、어쩌면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는 악수를 교환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제창하는 애국가의 소리는 고요히 밤의 적막을 뚫고 동방의 하늘에 널리 퍼져가는 것이었다。

그땐 어떻게 순경들이 그렇게도 신경이 둔했을까？참으로 우습기만 하다。

운명의 날！二八일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나니、운명의 날 二八일은 五천년 역사의 광음 속에 새로운 굴을 안고 밝아왔다。

벗들은 모두 옷을 껴입고 삥 둘러앉아서 마지막 기도를 올렸다。

「오、주여！부디 오늘의 투쟁에 많은 빛을 주소서。」

이른 아침、조반도 먹지 못한 채 우리들은 또 연락을 서둘렀다。

학우들 가운데는 데모를 중지하자는 의견들도 많았다。신변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재빨리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와서는 오직 데모 결행의 연락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횃불을 밝혀라。동방의 빛들아！〉

하는 구호를 정해 가지고 교문을 들어섰을 때엔 벌써 시간은 한 시가 임박해 오고 있었다。우리

들은 한시에 일제히 달리기하자고 했던 것이다。

열 두시 오십분、학교로 뛰어 들어가니、팔백여명의 학생들이 쏜살같이 모여들어 전부 교실 밖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다。대의원들을 만나 보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던졌더니、몇몇 사람은 주저하는 빛을 보이기도 했지만、결국은 찬성하고 말았다。

혁명의 불꽃은 또 다시 타오른다。반항의 다수 의사는 폭발할 시간만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때다!

교무실로부터 한분 두분 선생님들이 운동장을 향해 두번두번 걸어나오고 있었다。선생님은 큰 소리로 一학년과 二학년은 헤어지라고 추상같은 명령을 내렸으나、학생들은 명령은 아랑곳 없다는 듯이 와아하는 정의의 함성과 더불어 굳게 뭉쳐졌다。

대세는 이미 기울어진 것……。

진정 울부짖는 젊은이들의 의침!

〈우국(憂國)에 타는 홍안〉엔 격레의 핏발이 펄펄 뛰고 있었다。

때는 왔다! 나는 비호같이 단상에 뛰어 올라 안포켓에 넣어 두었던 결의문을 펼쳤다。

경고생(慶高生) 八백명 건아(健兒)들의 박수 소리는 천지를 진동했다。

학생들의 얼굴엔 진땀이 흐르고 있었다。결의문을 낭독할 때、선생님들은

「아이구 이놈아、우쩰라카노。」

하고 만류하는 것이었으나、기어코 낭독은 끝내고야 말았다。

「나가자、발월당(발月堂)으로!」

하는 발화(發火) 신호가 뛰어 나오자、드디어 정의의 행진은 시작되었다。

홍분과 분노에 얽힌、팔백명 경고(慶高)의 데모 대열은 교문을 박차고 뛰어나오고 말았던 것이다。

경고(慶高)의 데모대는 거침없이 달려가 발월당에 이르렀다。봉산동(鳳山洞) 파출소에서 제지당할 줄 알았던 팔백 학생의 데모대가 진정 발월당에 이르렀던 것이다。

발월당에 이르자 〈횃불을 밝혀라、동방의 빛들아〉라는 우렁찬 구호가 거센 젊은이들의 입에서 일제히 터져나왔다。학생들은 줄기차게 달려 대구매일(大邱每日) 신문사 앞에 도착했다。

데모대는 잠깐 정지해서 〈횃불을 밝혀라 동방의 빛들아〉라는 구호에 뒤이어 〈학원에 자유를 달라〉라는 구호를 힘차게 부르짖었다。

부정을 규탄하는 학생들의 정의의 의침은 그야말로 의기충천했다。

데모대의 학생들은 쏟아지는 땀방울에 옷마저 함빡 젖고、눈엔 감격의 눈물이 충성거렸다。

전율을 느끼면서도 강렬하게 반항하는 젊은 넋들아! 그들은 진정、백의인(白衣人)의 아들이었다。

온 대구 시민들은 주먹에 땀을 쥐고 데모대를 성원했으며、아버지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 장하다。」

고 외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어떤 신문기자가 학생들에게 구호가 뭐냐고 물자、

「이 새끼、니가 경찰인지 형산지 알 게 뭐냐。」

고 소리치며 줄기차게 달렸다。

드디어 도청 광장에 이르자 학생들은 땀을 착착 흘리면서 모자를 벗어들고 댄주먹을 뒤흔들면서

「오 지사(吳知事) 나오라!」

는 함성을 터뜨렸다。

그때 나는 도청의 동산에 올라가 결의문을 낭독했으나 경찰들의 제지로 그만 끝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눈물과 울분에 싸인 학생들의 심정은 격노에 뛰고 있었다。한때 우리 학생들은 울분을 참지

못해 흙덩이를 집어 던지기도 했으나, 십 이년 동안 배운 학생들의 이성은 흙이나 돌을 계속 던지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결의문을 읽다가 제지당한 나는 학생들 속에 뛰어들어 도청을 뛰쳐나와 시청 쪽을 향하여 달렸다.

벌써 도청 문앞을 나올 땐 검은 제복의 경찰들이 그 빤질빤질한 박달나무 방망이로 자기 자식과 같은 어린 학생들의 손과 팔, 그리고 다리를 마구 후려갈기는 것이었다.

학생들은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결코 데모 대열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다. 데모 대열 속에는 그의 아버지가 자유당원인 사람도 있었고 공무원인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와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싸워 이긴 것이다.

도청문을 뛰쳐나와 한국은행까지 왔을 땐 벌써 다람쥐 같은 경찰 백차가 쏜살같이 달려와서는 우리 학생들을 마치 물건처럼 마구 때려 차에다 실었고, 쉴새없이 내리치는 방망이는 우박 퍼붓듯 했다.

시청에 이르자 우리 학생들은 실신 상태에 빠져 힘없이 쓰러졌다. 쓰러져 누운 학생들의 얼굴에 이 나라의 〈민주경찰〉들은 권총을 겨누기도 했다.

「쏠라면 쏴라!」

하고 학생들은 용감하게 반항했지만, 한가닥 불안과 전율을 숨길 수는 없었다.

거기서 스크람을 짜고 도지사 관사에 이르자, 겁을 집어먹은 오지사는 뛰어나와서 학생들에게 폭행을 가하고야 말았던 것이다.

학생들이 두드려 맞는 것을 바라본 김 현규 선생님은,

「어째서 학생들을 때리는 거요? 학생들에게 손대지 마시오!」

하고 외쳤더니, 오임근(吳淋根) 지사는,

「이놈의 새끼, 경고(慶高) 교장 어느 놈이냐,

즉시 데리고 오라!」

고 욕설을 퍼부었다.

학생들을 때리던 지사의 손에선 한줄기 붉은 피가 흘러 내렸다. 그 길로 데모대는 구(舊) 국립극장 쪽으로 향하여 행진하다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많은 학생들은 남대구 경찰서로, 대구 경찰서로, 도청으로, 각 파출소로 붙잡혀 갔다.

남대구서에 붙들려 간 학생들에게는 어떤 경찰이 대뜸,

「어디 정치 이론을 한번 따져 볼까. 그래 난 자유당이 좋다. 넌 자유당이 싫으냐?」

고 달라붙는가 하면, 또 입을 열어,

「너가부지(너의 아버지) 공무원이지, 여측없다 없어.」

라고 위협을 주기도 했으며, 학생들의 손을 꽁꽁 묶는가 하면 마구 구타했던 것이다.

도청에 끌려간 학생들은 백 이십 여명이나 되었었다. 경찰들은 학생들을 위협했으며, 반항하는 학생들을 두드렸다.

학생들은 그와 같은 위협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반항을 했다.

「문 좀 열어 주소. 공기 탁하구만.」

잡혀간 그들이 발한 조롱은 불안 속에서도 가져보는 남아의 태연자약한 여유라 해 들까?

한 가지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겨운 것은 가로에서 두드려 맞는 남학생들을 바라보던 여학생들이, 순경에게 달려들어 결사적으로 비난하며 말리던 모습들이다.

그 길로 학교에 돌아오니, 교무실엔 몇분의 선생님이 맥없이 앉아 있을 뿐 텅 비어 있었다.

어떤 선생님은,

「사내가 죽으려면 깨끗이 죽어라.」

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건 확실히 학교를 파괴하는 짓이야.」

하고 흥분에 넘치는 말씀을 던지는 선생님도 있었다.

가쁜 숨을 들릴 사이도 없이 형사들이 밀어닥쳤다。 교장 선생님은 벌써 도청에 가시고 안 계시었다。 나는 형사들에 끌려서 쩔차에 올랐다。

쩔차는 초속도로 달리더니 도경찰국에 턱 갖다 대는 것이었다。

경찰국에 이르자 형사실로 나를 끌고 가는 것이었다。 온종일 밥을 굶어 배는 고프고 다리는 절룩절룩 피로에 겨웠다。

형사실에 들어서자마자 형사들이 나를 뺑 둘러싸는 것이다。 대의원들의 명단을 내놓고 부형이 공무원인가 아닌가를 묻는가 하면、

「넌 임마 이적행위(利敵行爲)로 징역 오년 아니면 육년이다。」

하는 형사도 있었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노려보는 형사도 있었다。

생전 처음 들어와 보는 형사실! 왜 형사실이라는 곳은 그처럼 무정하고 말조차 없는 싸늘한 곳인가。 거기서 난 죽어서 천당에서 만나자던、 동지들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 부등켜안고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동지들과 이야기할 사이도 없이、 비교적 이마가 넓은 한 형사가 나타났다。 그자가 바로 김 사찰계장이었다。 그자는 나를 데리고 다른 방으로 끌고가는 것이었다。 불안과 공포에 싸인 채 나는 그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다。

그와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다。 그는 나의 눈을 빤히 쏘아보는 것이었다。 나도 그의 눈을 잠잠히 바라다 보았다。 그러자 그는 입을 열어、

「자네가 주동잔가? 누구의 지령을 받고 했는가。 그리고 모 당의 조종을 받았지?」

등등 말을 이어가더니、

「이 박사를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하고 묻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승만 박사의 애국정신과 독립정신은 참으로 위대하다고 생각하나、 십이년 동안의 오랜 집권 기간에 실정(失政)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오。」

하고 대답을 하고、

「연행된 학생을 전원 즉시 석방하시오。 내가 주동자니 전책임을 다 지리다。」

고 말했더니、 고려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 후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동안、 세 시간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러갔다。 참으로 전율과 불안의 세 시간이었다。 얼마 후에 연행된 학생들은 전원 즉시 석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몇몇 학우들은 밤늦게까지 붙들려서 신문을 받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우리들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만약 동료 한 사람이라도 구속하면、 내일은 온 대구시가 들고 일어설 것이 두려워서였으리라。

그 후 신문을 받고 피로에 지친 다리를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의 친구들은 근심 띄운 낯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팔에 방망이가 스쳐간 퍼어런 자국이、 눈에 띄었으며、 그들의 다리에선 한 줄기 선혈이 흐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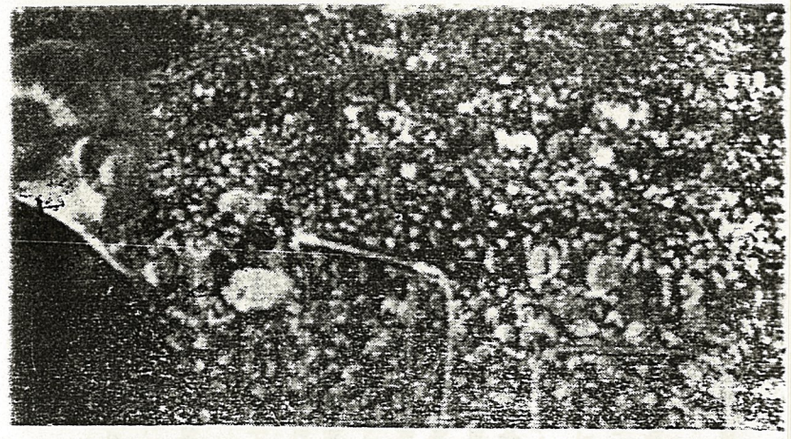
우리 집 앞에서는 〈민주 경찰〉들이 오가는 사람의 신분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 후 경찰들은 발낯을 가리지 않고 나의 집에 찾아왔다。 배후 관계를 끈질기게 캐묻고、 또 묻고 했던 것이다。

나는 극도로 피로한 나머지 병석에 눕고 말았다。 내가 누웠는데도 그들은 찾아왔었다。

순결한 우리 학생 운동을、 배후 조종에 의한 것이라 하니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이며、 정의의 피에 대한 모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저 푸른 장원에 민주주의의 꽃송이는 피어오르고 있다。 일찌기 황금시대에 빛나던 코리아여、 그 촛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빛이 되리라。

〈慶北高等學校篇〉



不正에 抗拒하는 젊음들

大邱高等學校 學生會

二월 二六일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경북고등학교의 이대우(李大雨——當時副委員長)군을 만나서, 일요일 등교설을 듣고 분개하면서

「그런 일이 어디 있는가?」

하고 놀라면서, 대가리가 두쪽이 나는 일이 있어도 기어코 싸워야 한다고 서로 마음 속에 굳게 다짐했다.

그날 밤 겨울 방학 후,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할께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중에 우리는 정치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도저히 그냥 덮어 둘 수 없는 모순에 분개하고 투쟁할 결의에 불타올랐었다。(이날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등교설이 전혀 없었다)

二월 二七일

이날따라 날씨는 매우 화창하게 개어 있었다。학교에나 오니 학우들 사이에는 벌써 군데 군데 모여 서서 수군거렸으며, 불평이 가득찬 표정들이었다。

여태까지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선생님이 아침 조회에서 내일(일요일)은 교내 운동 시합을 한다고 발표했다。학생들은 이에 본격적으로 선생님에게 질문의 화살을 퍼부었다。(그 때 시내에서 정부통령 입후보자 정견발표회가 수성천 변 두리에서 열린다는 가두 방송과 벽보가 한창 나붙고 해서 모두가 알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시원스런 답변을 하여주지 않았다。

학생들도 일요일 등교 이유가 민주당 정견발표에 방해를 하는 데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꾸 물었다。선생님들은 내일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단단히 처벌한다고 은근히 공갈 섞인 말을 늘어놓았다。

一학년 교실에 들어가니 모두들 등교 이유를 묻는 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하는 수 없이 교

감 선생님에게 가서 내일의 행사를 연기해 주기를 건의했으나, 바위에 댓침격이었다。

다시 교장 선생님에게로 갔다。

「교장 선생님, 오늘은 자유당 정견발표가 있는 날이지요?」

「그렇다。」

「그렇다면 오늘 네 시간 수업인데, 세 시간으로 단축을 하여, 일찍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이 자유당의 강연을 들으러 가시고 난 뒤의 빈집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일은 민주당의 강연이 있는데, 학교에 등교하는 날이면 별문제지만, 일요일이니 우리는 집이나 지키고 부모님들로 하여금 강연을 들으시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일의 행사를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합시다。」

「……。」

정당정치와 유권자들이 국가의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시기에 취해야 할 태도 등 공민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말하였으나 관철될 리 없었다。

힘없이 교장실을 나온 나는 수업을 받았으나, 도무지 머리에 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썩어빠진 정치 사기꾼들의 장난에 학창의 순결성이 이렇게까지 더럽혀지고 있고, 괴로움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가? 하는 생각에 기성사회를 비난도 해 보았다。나뿐이 아니고, 다른 교우들도 거의 같은 생각들이었다。

창밖에는 파란 하늘이 드티웠고, 이따금 붕붕하고 떠올라가는 비행기들의 모습이 보인다。전망하기 좋은 자리에 높이 세워진 본교이기에, 바깥 풍경을 내다보는 재미란 여간 좋은 것이 아니었다。때마침 앞산 밑 골짜기마다 흰옷 입은 동민들이 장사진(長蛇陣)을 이루어 동장들의 인솔 아래 일로 시내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실

로 근래에 보기드문 많은 사람들이었다。학생들은 순간 본능적으로

「야아!」

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모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다。떼를 지어가는 군중들은 그칠 줄을 몰랐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반공청년단의 푸른 깃발이었다。홍분의 도가니에서 어쩔 줄 모르는 학생들은、그 울분을 어디에다 터뜨려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그러나 어쩌는 도리가 없었다。

민주당 노래……〈가련다 떠나련다。해공 선생 뒤를 이어 장면 박사 뒤에 두고、조 박사는 떠나갔네……〉가 나타날까 싶어서、학생들의 호주머니조사를 하는 학교 당국에 대하여는、더 이상 말할 용기를 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과장 구(具) 자봉 선생님은 나에게 몇번이고 영웅도 시대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그러나 나는 만약에 국경일이 일요일엔 경우엔 행사를 그 익일인 월요일에 하라는 것을 대통령이 발표하였고、지금 실행하고 있는데、하물며 보잘것 없는 운동시합、아니 토끼 사냥하는 것쯤으로 명목이 서느냐 하는 것과、그리고 고 김 창룡 중장 살해사건 때 허 태영의 운전수인 이 유회가 허 태영의 시키는 대로 행하다가 죽은 일을 들어、우리도 학교 당국의 말만 듣다가 우리들의 교육도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되물었다。그러나 선생님은 우물 쭈물하시면서 이튿상으로는 진홍(晋洪—筆者)에게 지는 게지 할 수 있는가? 하시면서도 내일 등교를 강력히 주장하셨다。

나는 꼭 출석한다고 말씀드리고 나서、세시간 공부를 마치고 시내로 나오니、자유당 강연장인 수성천변으로 끌려가는 민중들이 골목마다 거리마다 꽉 차 있었다。나는 그 길로 부속고등학교에 가서 평소의 지우였던 최 용호(崔龍浩)군을 찾았다。

때다침、졸업식이 끝날 무렵이었다。

최군은 떨썩 조 박사의 고별의 노래인 〈가련다 떠나련다 강연 박사 뒤에 두고……〉란 것을 부르다가 경찰서에 가서 시달렸다고 말하면서、군중들을 수성교로 모는 것을 냉큼히 비난하고 있었다。

최 용호군과 나、그리고 같은 대구고교의 윤 종홍군과 세 사람이 대우군의 집으로 찾아갔다。그러나 그는 없었다。

우리는 자유당 강연장으로 가서 연사들의 열변(?)들을 듣고 시내로 나왔다。만나는 친구들마다 풀이 죽어 있었다。

다시금 대우군 집을 찾았을 때는 저녁 일곱시쯤이었다。조금 있으니 시내에 갔던 대우군도 오고、六、七명의 학우들도 모여들었다。그들은 모두 평소에 같이 놀던 경북고교의 전 학섭、권 준화、정 명소、하 청일、윤 종명、대구고교의 윤 종호、장 주표와 나、부속고교의 최 용호 등이었는데、모두가 불의의 일요일 등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신중히 생각하고 있었다。장 주호는 뒤에서 땅바닥을 두드리며 한숨을 몰아쉬고 있었다。모두가 홍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맹세하였다。종홍군은 그냥 침묵을 지켰고、윤 종명군은 그 큰 몸집을 움직이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한숨만 땅이 꺼져라고 쉬면서 불의에 대해 최후까지 투쟁할 것을 주장하였다。

모두들 끝까지 투쟁할 것에 동의했다。 방안 공기는 긴장할 대로 긴장해져갔다。

학교는 제각기 등교시키는 구실이 달랐었다。대구고등학교는 토끼 사냥이고、경북고교는 시험을 치른다고 했다가、학생들이 떠드는 바람에 극장 구경으로 바꾸었고、부속고교는 운동시합 등등이었다。

고등학교만이 아니고、중학교、심지어는 국민학교의 어린 동생들까지도 등교시킨다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를 들었을 때、피가 끓는 젊은이들

로서는 도저히 그냥 듣고 배겨낼 수가 없었다。

〈가혹한 정치는 범보다도 무섭다〉는 공자님의 말씀도 있거니와、사실상 이러한 처사는 동서고금을 통하여 그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일임에 틀림 없었다。욕되게 살기보다는 차라리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쓰러지는 것이 떳떳하지 않은가? 만약 우리가 이 더러움에 굴복한다면 십대의 청소년마저 죽었다고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시간은 벌써 아홉시가 되었다。

막상 데모할 것을 결정하고 나니、경북고교는 학생이 많고 활약하는 무대가 빤하기 때문에 일하기가 쉬웠으나、우리는 단 세 사람이라 퍽 난처했다。그러나 굴굴내 용기를 잃지 않고 생사를 같이하기로 했다。결의문은 두 학교가 같게 할까? 그렇지 않으면 다르게 할까。이 문제에 양론이 분분하다가、결국 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경찰의 제지에 억눌리지 않기 위해서 데모의 코오스는 파출소가 드문 미 팔군 사령부 뒷문에 모여서 두 학교가 같이 시내로 행진하든가、그렇지 않으면 경북고교는 교문을 나가서 봉산 파출소를 거쳐 반월당에 모이고、대구고교는 학교를 나와 큰 길로 달려 명덕 로오타리를 거쳐 반월당 앞에 가서 두 학교가 같이 행진하면 힘도 더 나고、경찰의 제지도 어느 정도 뚫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그럭하면 애로를 무릅쓰고 강행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목표지점까지가 문제였다。줄을 지어서 질서 정연하게 달리느냐、그렇지 않으면 마구 되는대로 달리느냐。그 밖의 여러 난점을 두고 우리는 있는 머리를 다 짰다。이윽고 결정을 본 것이 등교시간이 열 두시이니까 한 시에 모여서 일을 하기로 했다。우리는 토끼사냥을 한다고 운동장에 모일 것이고、경북고교는 영화 구경을 간다고 하니、그 때 운동갔세 모일 것이므

로、이 챤스를 이용하기로 하자。또한 시간마다 전화로 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일을 하기로 하자。구호는、

〈횃불을 밝혀라、동방의 빛들아!〉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신성한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우리에게 인류애를 발휘하라!〉

등으로 정했다。

열시 치는 소리를 계기로 해서、모두 문밖으로 나왔다。우리 일행은 경고의 화성군과 대고의 풍홍군、주효군과 나、이렇게 네 사람이었다。

지금 이 민족의 실정을 보라! 풀뿌리 나무껍질로 근근히 살날 같은 생명이나마 부지해 보려고、모진 고생을 달게 받으며 세월만 원망하는 농어촌 동포들의 참상을 생각해 볼 때、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니랴!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 나라의 정치인들에게 대하여서 일대 경종을 울려 각성을 촉구하자고 몇번이나 서로 다짐했다。그리고 한편 술집에서、당구장에서、다방에서 총청거리는 일부 학생들은 더욱 더 용납할 수 없는 군상들이라는 이야기도 서로간에 주고 받았다。그뿐인가、오늘의 자유당 강연장에 모인 군중들 중에、저 경산 쪽에서、촌에서 인간의 대접은커녕 짐짝같이 실려온 불쌍한 농민들이 다리 밑에서 웅성거리다가、연단 위에 선 신사 앞에 늘어섰을 때、그 신사의 입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없고、사람 옆에 사람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이고、가증스럽기까지 한 일이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여러 대의원 집을 찾기로 했다。처음으로 찾은 곳이 서 동호군과 신 의신군이었다。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七십명은 동원하기로 하였다。우리들의 첫째 할 일은 내일 결석생이 없도록 전원 출석시킬 일이었다。

간혹 밤중에 찾아 본 여러 친구들 중에는 시골 간 사람들도 있었다。그럴 때는 여간 실망하

저 않았다。 그러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데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고, 억제치 못할 힘이 치밀어 올랐다。

그날 저녁 찾아간 곳은 김 종하, 최 종호(부재), 공 기수 등이었고, 대대장 김 정일군의 집까진 못가고 열한시 반 고동이 울렸다。 현 민의원이며 민주당원인 임 문석씨 집에 있는, 우리와 같이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등지인 임 용대는 어떻게 하는가 하다가, 김 정일군의 집도 잘 모르고 하니 그에게 정일군의 연락도 부탁할 겸 찾았다。 용대군에게 우리는 자기 부친과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설득하고 협력을 부탁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하는 일이 민주당이나 어느 정당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말했다。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잠잘 곳을 찾지 못했으며, 용대군 집에머 물러선 안 된다는 것도 느꼈다。 마지막 고동 소리가 울렸다。 다시 우리는 대우군 집으로 달렸다。 대우군이나 효영군도 모두 잠을 자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여태까지의 계획이 급변했다고 한다。 그 내용인즉 데모는 단념하고 학교에서 결의문만을 읽고 그냥 헤어져버리자고 한다。 주효군과 나는 분개하였다。 변경을 주장하는 대우군과 계속 관철을 주장하는 주효군과는 일대 논쟁이 벌어졌다。 투표로써 결정짓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좀처럼 결말이 나지 않았다。 내일 낮에 전개될 일을 생각하고, 교육하고 계시는 선생님과 노부모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은 자연히 자꾸만 약해진다。 이제는 대우군도 효영군도 데모하자는 데 별 이의가 없었다。

날개 돋힌 청운의 꿈을 잡으려고, 허공에 손을 저으면서 노력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데 커다란 명예욕도 도모해 보려는 설계도가 어느 누구에게도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계획이 없을 리 없었다。 그러나 늦어도 내일 저녁만 되면 우리의 생생한 두 손목은 죄인 아닌 죄인으로 묶여질 것이고, 며칠 후 공판을 받은 뒤엔 그 결과대로 징역(?)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니, 자꾸만 내 마음이 어지러워질 뿐아니라, 전 학생의 선두에 서서 내달리고 지휘하고 싶은 생각은 더구나 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은 뒤로 미루고, 내 알몰뚱이 하나를 헌 신짝처럼 버리기로 결심을 하자, 또다시 용기가 되살아 올랐다。

우리는 또 힘 있게 손 잡았다。 대구고교에는 나와 주효군, 경북고교에는 대우군과 효영군, 네 사람이 생사를 같이 하기로 맹세했다。 우리가 데모를 한다고 해서 학생 전원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게다。 우리 네 사람만 희생이 되면 그만이고, 우리들의 빛나는 정신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며, 우리 민족 전체의 진로는 밝고도 밝게 동이 틀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차 설계도를 이차 계획으로, 죽지 않고 나오거든 저 강원도 첩·산중에 들어가서 괭이 메고 호미 들어 땅을 뒤지던서, 별도 치고 돼지도 기르고 해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낙원을 건설하자고 했다。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심고 수수심는
두메 산골, 내 고향에
못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고요히 부르는 노래소리는 밤의 적막 속으로 살아져갔다。 한시가 지나고 두시가 지나고 다시 세시를 쳐도 잠은 오지 않았다。 다시 애국가를 불렀다。 마음 속에는 몇 번이나 불안과 초조가 휘몰아치다간 다시 냉정해진다。

그날 밤 같이 잔 사람은 주효, 대우, 효영, 풍홍, 화섭, 춘화, 영소 등 제군이었다。 경북고교 결의문을 쓴 하 청일군은 한해 선배로서 공날금 관계로 제적되어 있었다。 그는 자기 집에 갔다。

이윽고 다른 사람은 모두 꿈속에 잠기고 고아 쉬는 숨소리만 들리어 왔다。 한참 동안의 적막이 가신 뒤、 대우군은 진홍아! 하고 부른다。 내가 대답하니 잠이 오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잠이 올리가 있나 하니、 그러면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 한다。 다시금 깊은 생각에 잠긴다。 고요하고 적막한 밤의 정막을 돋우어주는 시계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네시를 친다。

二월 二八일

잠시 눈을 붙이고 난 뒤 잠을 깼을 때는 여섯시였다。 우리 일동은 우리가 쓴 결의문을 가지고 붓글씨를 잘 쓰는 박 대근군의 집을 찾았다。 우리가 울면서 호소하는 바람에 그랬는지 그도 감동하여 써 줄 것을 쾌히 승낙했다。

부위원장이 성실군을 찾았다。 그에게 등교시간이 민주당 강연 시간과 같은 열두시이니、 적어도 열시까지는 학교 근처에서 대의원을 소집하고 결의문을 통과시키도록 부탁했다。

아침은 친구 서 선홍군의 집에서 먹는 등 마는 등하고 시내를 휘돌았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학생들이 제법 모여 있었고、 구석 구석에서 수군거리고 있었다。

데모를 한다는 소식을 들은 학생은 모두들 만족해 하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비보(悲報)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부학생들의 얼굴에는 급기야 수심이 서렸고 한물이 꺾이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고 데모의 결의문을 박 대근군이 쓰다가 그의 아버지에게 탄로되어 빼앗겨 불 속에 던져졌다는 것이다。 그때 시간은 열시경이 되었다。 시간은 급하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와 나의 등료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냉정을 찾았다。 결의문은 없어도 좋다。 나중에 적당히 처리하기로 했다。 그것이 밖으로 누설되면 큰 일이다。 심 재태、 최 종광、 서 선홍군을 시켜 그 집 대문을 지키고 서서、 드나드는 사람의 출입을 못하게 하도록 했다。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열두시 반까지는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다짐을 주어 보냈다。 대근군은 아버지가 교원의 입장인데、 결의문을 불태워버렸다고 아버지께 사표를 내라고 볶들고 놓지를 않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뿐인가 경북고교에서 시간마다 전화로 연락하게 되어 있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다。 윤 풍홍군을 보냈다。

그러나 대우군도 못만나고(그 때 학교에 없었다) 윤 종명군을 만났는데、 신통치 않은 답변을 듣고 왔다기에 또다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늘 염려되었기에 내 예측이 맞았는가 하고 생각했다。 주효군은 분노에 가득찬 얼굴로 욕으로써 그들에 대했다。 부위원장 성실군과 팔호군을 보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역시 만나지 못했다고 하며、 학교는 조용하다고 한다。

나는 다시 생각했다。 문제는 학교 문을 뛰어나와 반월당에 모이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플랜을 다시 변경했다。 학교 교문을 돌씩 돌씩 나와서 반월당 골목에 전부 모이게 하면 가장 힘든 부속고교도 참가하지 않겠는가 싶었다。

다시 이 계획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주효군도 찬성하고 해서、 작은 문만이 열려 있는 큰문을 활짝 열어 젖혔다。 그리고 나는 부속고교로 달려가서 최 용호군을 만나자、 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당시 부위원장인 제철군이 듣지 않으므로 불가능했다。 나의 몇몇 부속고교 동료들과 앞골목으로 들어가 이야기하니、 그들은 오늘은 불가능하고 이틀 후인 三월 一일에 크게 시작하자 한다。 만약 계획이 다 틀어진다면 모르되 끝까지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시킬 것임을 밝혔다。 벌써 시간은 열 두시를 넘어서 일분 일초가 숨가쁠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나는 같이 간 대대장 김 정일군을 반월당 앞으로 보내서 학생을 지

휘하게 하고, 경북고등학교로 갔다。 그 때 경북고등학교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대우군은 못나오고 안 효영군과 정영소군 등 몇몇 학생이 달려 나와서, 경북고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표명했다。 왜냐고 물으니 대대장 이 준원군이 반대한다는 것이다。

그 때의 나의 심정을 무어라 나타내어야 좋을는지, 이 둔한 붓끝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다 써낼 수 없다。 나는 우리 학교만이라도 단독으로 강행할 것을 말했다。 정 영소군은 한번 더 노력해 보고, 자전거를 이용하든지 하여 그 결과를 신속히 연락해 주기를 약속받고, 반월당 가는 합승을 탔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가 싶은 허무한 감에 맥이 풀려 정신없이 후들거리면서도, 좀 더 빨리 달려 주지 않는 합승차를 원망했다。 눈은 충혈될 대로 되어 벌겋게 타 올랐다。 반월당 앞에서 학교로 가는 뻐스를 기다릴 때, 경북고교생이 문을 튀어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이제는 됐다。 내가 살아온 중 이보다도 더 반가운 소식을 들은 일은 없었고, 그만한 기쁨을 맛본 적도 없었다。 그냥 학교로 향해 달렸다。 이 원영군이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학교에는 토끼사냥 간다고 운동장에 모여 있고, 곧 출발할 것이라고 전해줬다。 자전거는 내가 탔다。 원영이가 뒤에서 밀었다。 그는 숨이 차서 뒤에 처졌다。 또 다른 학생이 밀었다。

나는 무턱대고 페달을 밟았다。 땀은 샘과 같이 솟아 마구 흘러내린다。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운동장에 모여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학우들의 모습 뿐이었다。 또 한 학생이 뒤에 처졌다。 어쩌면 그렇게도 길이 험하고도 먼지 모르겠다。 또 한 학생이 밀어 올렸다。 이 때만큼 아까운 시간은 없었고, 조바심나는 적도 없었다。

교문을 돌어서자마자 자전거를 내동댕이치고 걸어 나가니,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고 숨은 헉

헉 차나, 같이 당굴고 자라가는 학우들의 모습을 볼 때, 불길처럼 내 가슴이 뛰었다。 내가 없는 동안에 전교생에게 연락이 다 된 줄 알았다。 다들 나를 보고 늦게 나타났다고 원망하는 눈초리다。 교단에는 교장 선생님이 토끼사냥가는 훈시를 열심히 하고 계셨다。

그 때 나는,

「가자!」

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외마디 고함을 질렀다。 학생들은 일제히 교문을 뛰쳐 나왔으나, 선생님 등의 제지로 약 백명 정도만이었고, 그 다음은 다시 교정으로 모여들었다。 밖으로 뛰쳐나온 학생들은 그칠 줄 모르고 능인고등학교 옆으로, 경북여고 쪽으로 마구 달렸다。 나는 서라고 손짓을 했으나, 그들은 가라고 하는 줄로 알고 오히려 자꾸 앞으로 달린다。 나는 여기에서 완전한 실패감에 당황했다。 또다시 일어설 기운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선생님은 밖에까지 따라 나와서 나를 붙들고 만류하였다。 나는 다시 이차 계획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약 백여명은 경북여고 앞을 지나면서 고함을 지르고는 반월당을 지나 중앙 파출소로 향해 달렸다。

김 정일, 서 동찰, 신 의신군이 선봉이었다。

〈우리에게 인류애를 달라!〉

〈학생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중앙 파출소 앞에서 학생들을 잡으려는 몽둥이와, 잡히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스텍키(토끼잡이용)와의 일대 접전이 벌어졌다。 경북고교는 경찰관들이 모두 수성교 강연 장소로 가고 없었기 때문에 무사히 제지망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나,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경찰관들이 모두 중앙 파출소 앞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일대 수라장을 연출하였으며, 선발대는 완전히 제지당하고,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방

망이 새롭게 몰두될 뿐이었다。

학교안에 남은 학생은 一학년 四백八십명과 二학년 나머지 학생들이었는데, 내가 일차 계획에 실패하자, 장 주효군이 우리의 결의문을 없애버려서, 경북고교가 채택한 것을 가지고 단에 올라 읽다가 몇 선생님들의 제지로 결의문까지 빼앗기는 바람에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땅바닥을 두드리며 통곡하다가, 선생님께 붙들려 층계를 한 발 한 발 디디고 내려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와 주효군 담임선생이신 H선생님은 시골서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더구나 주모자가 우리였기에, 거의 울상이 되어 얼굴빛은 거의 잿빛에 가까왔다。 뿐만 아니라 주효군은 목메인 소리로,

「선생님, 약합니다!」

하고 외치는 말에, 악독한 현실을 원망하면서도 그렇지 않다는 부정을 하느라고 애쓰시는 모습은 정말 안타까왔다。

주효군은 다시 돌층계 위에서 시선을 뒤로 돌려

「대구고교생들은 다 썩었다!」

하고 일차 선발대의 뒤를 따르지 못한 학생을 원망하면서, 목메인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럴 때 학생들은 감동의 눈시울이 뜨거웠고 한번 더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나는 열렬한 학우 十五명과 의논을 했다。 철조망을 뛰어넘고 들어가서, 전교생을 데리고 나오자고도 해보고, 철조망 밖에서 불러 내자고 하는 의견도 있고 하여 저마다 의견이 구구했다。 이러는 동안에도 다음의 계획은 짜여졌다。

우리 학우들은 모두 힘이 세어 보이는 서 선홍, 은 국웅, 최 상훈, 김 종대, 최 종광 등이었다。 이 학생들을 데리고 다시 들어갔다。 모두들 학생들 속에 있다가 내가 가자! 고 신호할 때엔 일제히 데리고 나오기로 했다。 교문에는 선생님이 서있다。 선생님은 왜 들어오는가 물는다。 이제 다 포기하고 토끼사냥 간다고 말했다。 교

장 선생님은 조회대 위에서 일장훈시를 하신다。 나는 선생님들의 만류에 울었다。 선생님들은 그 이상 결코 붙들지는 아니했다。 뚱뚱한 교감 선생님은 품에 나를 껴안고 진정하라고 하셨다。

그 때 나는 말했다。

「선생님! 이렇게 가르쳐 놓고 저렇게 하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배우기가 싫어졌읍니다。 저희들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좋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는다는 것은 저희들의 순진한 감정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힘껏 주장했다。

어느 선생님이고 끝까지 힘껏 붙든다든지 하는 선생님은 아무도 없었다。 한쪽 모퉁이가 쑥 빠져나간 가대열이 어수선한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있었다。 내가 다시 교문을 들어설 때도 나의 정신이란 건 어떻게 해야, 어떤 수단이라야 성공하겠는가? 학생들은 왜 전원이 선생님이 제지한다고 해서 교문을 뛰쳐 나오지 못하는가? 얽히고 설킨 이해못할 일차 계획의 실패를 원망하면서, 한결같이 흐르는 땀이 눈속으로 들어 가는 것만을 약간 거두고 있었다。

그 때 나의 뒤에서 등을 치고 무어라고 말하는 어떤 누른빛깔의 코우트를 입은 사람이 한분 얼씬했는데, 나의 예감엔 기자가 아닌가고 생각됐다。 그러나 가늘게 스쳐가는 그의 말소리가 귀에 들릴 리가 없었다。

내가 여러 학생들 속으로 들어갈 때 학생들의 시선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에는커녕 전부가 나에게로 몰려왔다。 나는 낮은 소리로 눈을 부릅뜨고

「이번 까지만 들어라!」

하면서 공갈 아닌 애원을 하였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남에게 억압을 주어도 되지 않고 억압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지만, 이때 우리가 하급생에게, 같은 학우에게 한 짓은 하등 어떤 제약을

받았거나 주었다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이차 계획에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서 선홍、최 상훈、최 종광、은 국웅、민 태식 제군은、이른 아침부터 승리를 위해 나의 하는 일에 협조라기보다 자기 일에 극히 충실하였다。

어느새 우리 학우들은 학생들 속에 다 퍼졌다。 교장 선생님은 교단에서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태연한 태도를 가지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눈에 환하게 보였다。 내가 학생들 속에 들어갈 때 학생과장 선생님이 뒤를 따라 오시면서 한번이라도 들어 달라고 애원하듯 말을 하였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나는 학생들을 뚫고 교문을 등진 서쪽끝에 가섰다。 선생님들이 나에게 가까이 올 때 물러가려고 하니 인정도 사정도 없는 놈이 되었다。 나라고 정든 교정、정든 선생님들을 모를 리 없었다。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선생님의 말씀을 완강히 거부하고 역행할 때、선생님들의 섭섭한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일보 건너 선생님이 보실 때、선생님은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약간이라도 그쳐지는 순간만을 기다렸다。

때마침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은 정치도구화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셨다。 나는 그 때 챤스라고 후돌거리는 다리를 바로잡아 힘있게、

「교장 선생님、오늘 우리들의 등교가 벌써 정치도구화된 것입니다! 자! 교장 선생님의 말씀 듣지 말고 학우들이여、가자!」

고 외쳤다。

여기 저기서 가자! 가자! 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학생들은 무질서하게 일제히 만족한 얼굴들로써 교문을 빠져나갔다。 이 때 몹시 당황한 것은、학생들이 교문을 나가다가 한 학생이 넘어져서였다。 거기에 연달아 넘어지는 꼴을 보고 선뜻 머리에 떠오른 것은、부산에서 시민 위

안의 발을 열다가 당한 참상이었다。 그러나 하늘이 도왔는지 다들 일어서서 뛰어갔다。 선생님들은 하도 어이가 없는지 우두커니 서 계셨고、교장 선생님이 극히 당황해서 〈욱! 욱!〉 소리 아닌 신음을 하실 뿐이었다。

한길로 나오니 전체의 질서가 좀 잡히는 듯했다。 학생들 벋두리에는 외래의 제지를 막으려고 비교적 단음직한 체격을 한 학생들이 섰다。 이제는 되는가 보다。 한없이 마음이 기쁘고 정의의 사수에 펄펄 뛰는 젊은 피들에 감동했으며、감격 속에 도취되지 않을 수 없다。 학생들은 제각기 「야!」하는 소리를 내면서、물레 벗은 말이 되어 어디든지 힘껏 달리는 것 같다。 나는 더 이상 몸이 말을 듣지 않음을 알았다。 속은 탄다。 목은 메인다。 다리는 후들거린다。 학생들은 나를 부축하면서 달린다。 나는 넘어지려는 순간 순간을 극복하면서 있는 용기와 힘을 다하였다。 그때 누군지 불국사(佛國寺)여행 기념 작시를 손에 쥐어준다。 때마침 중앙빠스가 내려오는 것을 세워서 타고 지휘했다。 우리는 남산과출소 앞에 도착했다。 나는 결의문도 아무 것도 없이 그냥 맨몸이었다。 크게 뭉친 한떼가 지나간 뒤에 숨이 가빠서 후돌거리며 뒤에 처진 학생들은、자색 방망이 앞에서 쓰러졌다。 흰 패트를 카아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든다。 불을 끄는 소방차도 그냥 마구 달린다。 어디서 나왔는지 정사복 경찰관들은 학생들을 하나씩 하나씩 연행한다。 때로는 꼭 막힌 골목길에 몰아 넣고는 후려갈기고 수갑을 채운다。 토끼잡으려고 가졌던 작대기도 몸부림 속에서 공중에 솟았다。 잡힌 차에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손가락을 깨문 일도 있었다。 나의 뒤에 따라오던 학생들이 하나 둘 잡혀가고 도망갔다。 무의식중에 치는 시민들의 박수 소리도 들려오고、학생들을 구호하려고 숨겨주고 길을 비켜주고 했다。 내가 역전에 도착했을 때는 학생들이 三、四십명이 되었다。 학생들이 수성

교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제 우리의 안식일인 일요일을 우리가 가지자、수성교 강연강에 가고 싶은 사람은 수성교로、종교인은 교회 법당 성당으로 가라고 말하고 학우들과 같이 합승을 타고 수성교로 갔다。 삼덕로오타리까지 순경들이 와서 학생을 잡는다。

수성교에선 박 순천 여사가 강연중이었는데、「지금 대한의 아들딸들이 순경들과 싸우고 있는데、이에 성원의 박수를 보내자。」

는 말과 함께 十三만 군중들이 보내는 박수 소리가 우뢰같이 들렸다。 아직까지도 목은 마르고 머리는 돈다。 어젯저녁도 옳게 먹지 못했고、오늘 아침도 점심도 굶은 격이 되니、그리고 온 정력을 소모한 것이 며칠간이었으니、배가 고프고 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것도 당연하리라。 나중에 집에 가서 점심과 저녁을 겸해서 밥을 먹었으나 잘 넘어가지 않는다。 몇몇 동료들이 와서 학생들이 시내에서 붙잡혀 남대구서로、대구서로 연행되고 욕을 당하고 있단 소리를 듣자 그냥 뛰어나와、전 학생의 고통을 내가 대리하면 그들은 내일부터 여전히 학구(學究)에 전력을 다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나는 벌써 각오한 몸이 아닌가、이렇게 생각하면서、칠성동 파출소를 지나 기차 기관고의 벽돌담을 돌아가면서 무거운 발길을 옮길 때、찝차가 한 대 어느새 나타났는지 나의 양복 카라를 억세게 잡더니 옆의 또 한 사람이 팔을 잡는다。 그와 동시에 〈잡았다!〉는 쾌감에 만족한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더 힘껏 쥐고 찝차에 태웠다。 그 차 안에는 평소에 늘 존경해 오던 선생님도 계셨다。

처음 내린 곳이 칠성파출소였었다。 알고보니 뚱뚱하게 생긴 사람은 경찰국 사찰계 공작주임이고、다른 사람은 국 사찰과 형사였다。

처음 혁대를 잡고 포켓에 들어 있는 휴지까지 다 빼앗았다。 그때부터 공작주임은 날카롭게、또는 부드럽게、치켰다 내렸다、눈을 부릅떴다

하면서 언제 알았는지 우리 학교의 교문에서 두번째 들어갈 때 등을 두드리며 독려하던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 나는 알 리가 없었다。

선생님은 그들에게서 시간을 얻어 나의 신변을 걱정하시면서 한숨을 쉬었다。

「선생님、진정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지금은 기뻐하실 텐데요。」

선생님은 나의 굳은 태도를 보고 적이 만족하시는 것 같았다。 내가

「학교 처벌은 각오했지만、어떻게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퇴학은 틀림없을 것이며、그렇지 않으면 무기정학일 것이다。」

선생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나도 태도를 결정했다。 너의 처벌이 확정된다면、학교를 나가게 된다면、너의 담임 홍 변준선생도 너와 같이 교육계를 물러가려고 결심했다。」

어느 때도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 솟아오른다。

「선생님、그렇게 되면 저는 더 괴롭습니다。」

밖에서 형사가 무정하게 부른다。 태연한 태도로 다시 찝차에 몸을 던져、생후 처음으로 맛보는 길을 향해 갔다。 저녁 놀도 사라진 캄캄한 장막을 뚫고 간간이 크락숀 소리를 들으며 확고부동한 세계를 찾았다。

경찰국 사찰분실에선 주효군이 눈을 크게 뜨며 나를 보고 놀란다。 어느새 왔는지 효영군도 대우군도 와 있다。 나는 형사가 인도하는 대로 조그마하고 캄캄한 방으로 갔다。 옆에서、위에서、밑에서 꽉 억누르는 듯한 공포 속에서、켜지는 촛불 아래 나의 담당 형사와 마주 앉았다。

〈大邱高等學校篇〉

女學生 데모 行列 속에서

釜山데레사女子高等學
學　　生

一차 계획

우리 학교의 간부들인 석진회·문명자·박현복 등은 다른 학교의 여학생과 남학생으로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끼리 연락하여, 우리 학교 앞(범일동 삼일극장 앞골목 길)에서 三월 一二일까지 수차에 걸쳐 모여서 의논한 결과, 三월 一三일 오후 세시에 동래고등학교를 포함한 서면 지구 일대의 남녀 학교가 일제히 봉기할 것을 언약하였다。 三월 一三일 오후 세시 조방(朝紡) 앞에 가 보니, 어떻게 알았는지 벌써 경찰백차를 위시하여 정사복 경찰관들이 경비진을 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골목 안에 모인 각 학교 학생들의 대표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협의한 결과, 오늘은 일단 데모를 중지하되, 내일 다시 결행하기로 하고 해산하였다。

二차 계획

三월 一四일 오후 여섯시, 서면 제일전탕 앞에 각 학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강력한 제지로 실패하고, 고三의 조 숙자외 二명이 동 부산 경찰서에 연행되어 갔다。

三월 一五일 오후 네시경 하교시에 동부서 사찰계 형사들에게 또다시 위원장 이하 一四명이 연행되어 갔다。 형사들은 연행된 우리들을 무수히 구타했으나, 끝까지 우리들이 계획한 데모는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박현복 양은 전신에 멍이 들도록 맞으면서도 끝내 정당성을 주장하여,

「지독한 계집애다。」

라는 욕설까지 얻어먹었다。

三월 一六일 오전 열두시 삼십분, 학교 단독의 각서로써 우리들은 전원이 석방되었다。 그 후 연락은 여전히 계속되었으나, 경계가 하도 심하므로 이제는 우리 학교 단독으로 감행하는 길 밖에 없게 되었다。

데모대의 출발

四월 一九일 열두시 사십분경, 이날 이미 경고한 학생들이 데모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장 봉기의 위력이 큰 우리 학교 교문 앞에는 무장한 열개 소대의 경관과 五, 六명의 형사들이 학교 주위를 둘러싸고 철통같은 경비를 하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훈육주임 선생님 혼자만 교문 안쪽에 서 있을 뿐이었다。

이에 간부 수명이 교무실에 들어가 유 명구 선생님에게,

「선생님, 지금 우리는 데모를 단행하겠읍니다。」

라고 하였더니,

「이 바보들아!· 선생님들에게 와서 말할 필요가 어디 있어。」

하시는 것이었다。

우리들은 선생님들의 숨은 뜻을 짐작하고 다시 교문 안 쪽에 혼자 계시는 황 정환 훈육주임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우리는 지금 데모를 하겠으니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소리 소리 질렀더니,

「이 바보들아! 교문의 빗장은 걸려 있지 않다。 나가서 교문을 한꺼번에 밀면 되는 거다。」

라고 하셨다。

이 때 우리는 함성을 지르면서 교문을 밀고 나섰으나, 교문 밖에서 이중 삼중으로 경비하는 경관에 의해 다시 교문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말았다。

이 때 훈육주임 선생님이 나직이 「뒷문」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소화 보육원 쪽 뒷문으로 뛰어 나갔다。 경관들이 뛰어와서 문을 폐쇄할 동안 약 三백명의 중고생이 삼일극장 앞 간선 도로로 쏟아져 나와서 대열을 정돈하고, 대대장 석 진회·박 현복을 선두로 반 구보로 서면을 향해 데모

에 들어갔다。

〈동부여 일어나라。〉

〈경찰은 마산 사건의 책임을 져라。〉

〈협잡선거 다시 하자。〉

의 구호를 외치면서 혜화여고 앞까지 와서는 함성으로 데모 호응을 호소했으나、뜻을 못 이루었다。다시 경남 공고 앞에 가서 호응을 호소했으나、학교에는 아무도 없고、어느 시민 한 분이、「이 학교 학생들도 전원 데모에 나아가고 없다。」

고 알려 주었다。

우리들은 다시 그 곳에서 서면 급수소 쪽으로 향하여 서면 로오타리、범내골 로오타리를 지나 조방 앞을 거쳐 학교 앞 도로에까지 이르러선 다시 시청 쪽으로 가려고 하자、수 없이 몰려드는 경찰관의 제지로 기진 맥진된 우리들은 일단 교문으로 해서 운동장까지 밀리어 들어갔다。학생들은 약 사 킬로미터의 거리를 반 구보 데모를 하였으므로、모두 픽픽 주저 앉았다。

중 一년 신입생들이 우리를 부축해서 교실로 들어갔다。이 때 우리는 우리가 출발한 지 약 이십분 후에 二차 데모대 약 四백명이 우리들 뒤를 따라 학교를 출발한 것을 알았다。

二차 데모대는 一차 데모대의 뒤를 따라 뒷문을 박차고 구호를 외치면서 서면 쪽으로 향하였다。그러나 도중에서 一차 데모대를 만나지 못하고 서면 로오타리에 도착하였는데、로오타리 근처의 시민들이 함성과 박수로써 성원하였다。

이때 경찰의 일부가 두 대의 뻐스를 가지고 와서 곤봉으로 마구 갈기고 차면서、닥치는 대로 마구 낚아채어 뻐스에 물건처럼 주워 실었다。

이 무렵 찝차가 나타나더니、심 양섭 학무과장이 내려 경관들과 합세하여、학생들을 떠밀고 잡아 낚아서 뻐스에 밀어 올리면서、

「해산하라。」

「협잡 선거운운은 못 부른다。」

라고 고래 고래 소리지르면서 혼통을 쳤다。

학생들은 너무나 분해서 연방 경찰에 붙들리면서도 질서를 향하여、

「평화적 데모는 우리의 권리다。」

라고 목구멍이 터지도록 외치면서 목놓아 울었다。

그러나 경찰의 무력에는 어쩔 수 없어 강제로 뻐스에 실려 학교로 향하였다。제일제탕 앞에 왔을 때、학생들은 힘을 합하여 뻐스를 멈추게 하고、한 명의 경비 경관을 떠밀고 모두 거리에 뛰어 내리어 대열을 짓고、시민의 열광적 성원을 받으면서 다시 행진을 계속하였다。

三차 계획

삼일극장앞을 지나 학교 앞에 다다랐을 때、학교에 돌아와 있던 제一차 데모대 중 약 二백명이 또다시 교문을 박차고 二차 데모대와 합세하여 때마침 자성대 쪽 저지선을 뚫고 행진해오던 경남공고생과、뒤따르는 약 二만명의 시민과 합류하여 三차 데모에 돌입하였다。

一차 데모대의 나머지와 二차 데모대 중 학교까지 송환된 학생들은 교문 안쪽에 대기하고 있다가、얼마 후 우리 학교 데모대 약 백명이 학교 앞에 다다르자、일제히 「와아」 함성을 지르면서 교문을 밀고 나가 이와 합세하고、자성대 쪽에서 행진해오던 경공 데모대와 시민 데모대와 합세했던 것이다。이와 같이하여 데모에 들어간 三차의 우리 학교 데모대가 동부산서 앞 로터리에서 다시 경찰의 최루탄과 촌탄 발사로써 심한 혼란을 이루던 중、무자비한 경관의 밭포로 우리 대열 중 중三년의 김 영애양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이 때 뒤따르던 시민들과 골목길 안의 시민들은 본격하여 돌을 빗발처럼 던지니 경관들은 서 안으로 도망쳐 버렸다。데모대는 다시 전진하여 초량 중앙극장 앞에 이르자、또 다시 최루탄 세례와 곤봉 세례로 혼란을 이루던 중、

고二년 장 영자 외 四、五명이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여기서 연행되는 학생들을 남녀、학생、시민 할것없이 힘을 모아 싸워서 구출하곤 하였다。

이때부터 대열은 혼성이 되어 시민들과 한데 섞이어 경찰에서 뺏은 백차를 앞세우고 영주동 파출소로 행진하였다。 소방서 앞에서는 수십명의 경찰관이 무조건 총을 발사하여、우리는 일단 골목길로 피하였으나、경관은 골목 안까지 쫓아 들어와서 마구 총질을 하므로、우리들은 아무 집이나 가릴 사이 없이 들어가서 숨었다。

중三년인 이 숙희양은 어느 골목집에 뛰어 들어가 이불을 쓰고 누웠는데、여기까지 쫓아 들어온 경관에 의해 얼굴과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쓰러졌다。 이때가 오후 다섯시、계엄령이 선포되었다는 방송차의 소리가 골목길에 지쳐 쓰러진 우리 데모대원들의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① 우리 학교의 二차데모대 중고생 약 四백명이、서면、부산진 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강력한 제지로 곤봉에 마구 두드려 맞고、발길로 채이고 경찰 백차가 사정없이 초속으로 달려와서 데레사 여중생 한명의 목덜미를 휘어잡고 끌고 갈 때、이 광경을 목격한 우리들이 와악 달려들어 한꺼번에 엎치고 자빠져서 흙길에 딩굴자、경찰은 연행을 포기하고 우리들의 함성을 뒤로 들으며 오던 길로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연약한 여학생들이라도 단결되면 그 힘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새삼스럽게 느꼈다。

이때 우리 학교 여학생 데모대가 쓰러지고 자빠지자、주위에 모여 있던 약 三만 정도의 시민이 「와아-!」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경찰서 현관을 향하여 돌진하였다。 뒤이어 총성은 천지를 진동시켰고、앞선 五、六명의 시민이 총탄에 맞아 피를 뿌리며 길바닥에 쓰러졌다。

지금도 그때 우리들 앞에서 총탄에 맞아 목숨을 잃은 五、六명의 시민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귀중한 생명을 바친 것만 같아서、그 최후의 모습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② 우리 학교 여학생 三차데모대 약 三백명은 경남공고생과 뒤따르는 약 三만명의 시민과 합세、초량 중앙극장 앞에 다다랐다。 마구 터지는 최루탄으로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비비면서 당바닥에 주저앉았을 때、四、五명의 무장경관이 연기 속에서 뛰어나오더니 위원장을 나를 다구 질질 끌고 가자、五、六명의 여학생과 경공생 二명과 시민 一명이 달려들어 나를 구하기 위하여 격투가 벌어지고 돌이 날아오자、경관들은 모자도 벗어 던진 채 골목길로 도망가버렸다。 나의 교복은 죄다 찢어졌다。 우리는 서로 쳐다 보면서 무의식중에 「만세-!」를 소리높이 부른 다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하며、노래를 부르면서 영주동 소방서를 향해 전진하였다。 이때 앞서서 스크람을 짜고 전진하던 부위원장 문 명자、기울부장 김 정자、체육부장 박 종자、후생부장 박 종석、종교부장 신 정자、공작부장 이 춘자 등은 가슴을 내밀고、

「우리를 쏴라。 우리를 죽여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총칼은 물러가라。」

하고 목이 터지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에 호응하여 연도와 골목에 늘어섰던 시민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여학생에게 총을 쏘면 죽여라。」

고 외치며 빗발처럼 돌을 던지자、경관들은 공포를 쏘면서 소방서 쪽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지쳐서 쓰러지는 어린 우리 데레사 여중생을 경공생 두 명이 일으켜서 겨드랑에 끼고 전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때부터 대열도 무너지고, 데레사 여중생, 여고생, 경공생, 일반 남녀 시민들은 일대 혼성이 되어 전진을 계속하였다.

③ 우리학교 三차데모대가 동 부산 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발포로 제지 대치되어 있을 때, 중三학년 김 영애양이 총상을 입고 쓰러졌는데, 범일동 주 윗과에 기걸한 김 영애양을 시민들이 떠메고 달려갔을 때, 주 윗과 앞은 인산인해였다. 자성대 부근에서 총상을 입은 강 수영(경공생)군이 주윗과에 바로 직전에 입원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다시 여학생이 업히어 오는 것을 보고 시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여,

「여학생도 총에 맞았다, 우리도 가자。」

하고 서쪽을 향해 달려가자, 국민학교 아동들도

「우리도 가자。」

하고 뒤따라 나섰고, 꼬마들은 집안의 화초밭의 돌들을 날라다가 시민들에게 주며,

「이걸 가져가세요。」

하고 외치기도 하였다.

④ 三차데모 때 체육부장 박 홍자양이 지쳐서 뒤떨어지고 쓰러지는 여중생들을 구호하면서 혼자서 데모대를 뒤따라 가다가, 三월 一四일 데모 좌절 사건으로 동부산서에 유치되어서 몹시 구타 당한 형사와 사찰계장을 만났는데, 이들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너 어디 가느냐?」고 묻기에, 「데모를 중지시키려고 간다。」고 대답하자, 「그럼, 이 찝차에 타고 같이 가자。」하여 같이 타고 초속도로 중앙극장 앞에 이르자, 박 홍자양은 뛰어 내려서 데모대에 합류했고, 찝차는 되돌아 나갈 사이도 없이 데모대에게 빼앗기게 되어, 이때부터 데모대가 운전하는 그 찝차가 선도 역할을 하게 되었다.

四·一九 우리학교 데모는 다행히 사망자는 내지 않았고, 몇 사람 부상자만 내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데모는 끝난 것이다.

〈釜山데레사女子高等學校篇〉

民主革命의 발자취 〈價·800圓〉

1960年 7月 5日 印刷
1960年 7月 10日 發行

編 者·李 鋼 鉉
發行者·崔 暎 海
印 刷·平和堂印刷株式會社

發 行·正 音 社·서울特別市 中區 會賢洞 1街 3의2

〈登 錄·第 2 3 號〉

振替·서울 2245 番 ☆ 電話 ② 4919, 4927 番

文化製册社·製本